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## 日생명보험사 하반기 자산운용, '수익성보다 안정성 중시'

□ 일본 생명보험들이 발표한 FY2008 하반기 자산운용계획에 따르면, 자산운용은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나타남.

- 아사히생명보험(朝日生命保險)은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투자환경 급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전자산인 엔화기준 자국 채권을 1,000억 엔 증액하기로 한 반면 해외채권과 주식매입은 현상유지 내지는 줄이기로 함.
- 후코쿠생명보험(富国生命保險) 역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'수익추구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는 운용원칙'을 천명함.
- 미츠이생명보험(三井生命保險)은 장기 및 초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자국 채권을 500억 엔 정도 증가시키는 한편, 자국 주식 보유는 200~300억 엔 사이로 줄여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후퇴 장기화에 대비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함.

□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자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공격적인 주식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함.

- 상반기 말 약 300억 엔의 주식 평가손실을 본 아사히생명보험은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주가 하락 추세가 주춤해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주식 매입을 자제하기로 함.
- 후코쿠생명보험과 미츠이생명보험은 2008년도 하반기 닛케이 평균 지수를 각각 7,000~10,000엔, 9,000~11,000엔 정도로 보수적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경기악화 전까지는 공격적 주식매입보다는 채권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함.
- 이에 반해 상반기에만 약 400억 엔의 국내주식을 매입한 스미토모생명보험(住友生命保險)의 경우 세계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불안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, 도쿄증권거래소 1부 전 종목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(PBR)이 '1'을 밑도는 등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, 하반기에도 주식을 더 매입하기로 결정함.

(아사히생명보험 뉴스: 로이터, 10/14 | 후코쿠생명보험 뉴스: 로이터, 10/16)

미츠이생명보험 뉴스: 로이터, 10/15 | 스미토모생명보험 뉴스: 산케이신문, 10/17)